

완도군 숙원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본격화

기재부 예타 통과·국비 1천억 확보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 조성

전시·교육·연구...2030년 개관 목표

완도군의 숙원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된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주관, 국비 1천138억원을 투입, 완도군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천886㎡, 연면적 1만4천414㎡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에는 전남도에서 실시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 사업 공모에서 7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완도군이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이어 1년7개월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현장 설명회, 기재부 점검 회의 및 심의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전남도·완도군이 긴밀히 협력해 이번 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예타 통과로 군은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해양수산부·전남도와 함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조감도.

〈완도군 제공〉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으로, 수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

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1층에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산 역사관, 미래관, K-씨푸드관, 디지털 브릿지관, 어린이박물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박물관의 학술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마련된다.

박물관이 개관하면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완도군이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예타 통과는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해양수산부, 전남도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전북·어류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고수온 종합대책·예찰반 운영

재해보험료·예방백신 지원 등

해남군이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찰과 신속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울돌목 복단에서 진도군 임회면 중림리 서단, 해남 땅끝 서단에 이르는 해역에 지난달 초부터 고수온 주의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발령됐다.

해남군은 지난 6월 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동예찰반을 운영하는 등 육상·해상 양식장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차광막·액화산소 등 장비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수산동물 예방백신 지원 등 10억여원을 투입했으며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수온 모니터링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 2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어업인 행동 요령과 운영질환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해상 전복가두리와 육상양식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리 요령 지도와 장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사진〉

특히 폭염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양식어가를 위해 초복·말복 특별 판매전과 국회 전북 특판전 등 소비 촉진 행사도 잇달아 열어 어가 소득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통해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양식 어가도 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어장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무안군 계절노동자·농가 한마음대회 개최

29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서

무안군 24일 “오는 29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무안군 계절노동자·농가 한마음대회'를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지역 농가, 결혼이민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외국인계절노동자 무안군연합회가 주최하고 무안군 가족센터와 무안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협업해 준비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관내 상가 음식을 활용한 먹거리와 ▲오징어게임의 명랑운동회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지역 농가 소통의 시간 ▲K팝 EDM 파티 등으로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마음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행원 무안군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농가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농사에 설 틈이 없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하는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역 농가에서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김삼호 기자

해수욕장 구명조끼 의무화...영광군 인명사고 제로

첫 시행...31일까지 안전 관리

영광군은 24일 “2025년 여름철 가마미·송이도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운영·폐장했다”고 밝혔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30일간, 송이도 해수욕장은 7월23일부터 8월17일까지 25일간 운영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가마미 해수욕장에 8명, 송이도 해수욕장에 2명 등 총 10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영광=김동규 기자

방문객 수는 1만8천800명으로 지난해 2만5천40명보다 약 26.5% 줄었지만, 운영 기간 단속과 기상 여건의 영향을 고려하면 일일 평균 방문객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해수욕장의 안전을 넘어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의 이정표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폐장 이후에도 오는 31일까지 안전관리 요원을 연장 배치해 순찰과 입수자 계도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지붕 누수 ‘임시방편’ 지적

수년째 방치 곰팡이 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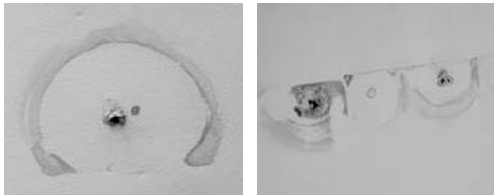
관람객 불편·응대 논란도

市 “방수공사·친절 교육”

개관 13년 차를 맞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이 시설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해 전면 재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관리마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쫓은 고장 불편”...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재정비 시급(본보 8월21일자 11면)이라는 제목으로 과학관 전시시설 다수가 노후화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붕 누수 문제까지 불거졌지만 임시방편식 대응에 그쳐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과학관은 현재 전시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시설도 곳곳이 낡은데다 특히 지붕 전체에 대한 방수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받이 설치와 같은 임시조치로 대응해 왔고 그 결과 비가 오면 관람 공간에 빗물이 떨어지고 천장 곰팡이가 생겨 미관을 해치는 실정이다.

〈사진〉

최근에는 관람객 불편 민원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는 “과학관을 방문했는데 아이가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직원에게 알렸더니 ‘알고 있다’는 말만 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어 작성자는 “직원들이 사람이 오는지 마

는지 이어폰을 꼰고 핸드폰만 보고있었다”며 “관람객에 대한 기본 응대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과학관이 수년간 지붕 누수를 방치한 채 임시조치만 해오다 곰팡이까지 생겼다”며 “즉각적인 보수공사와 콘텐츠 전면 개편, 그리고 과감한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물받이 설치와 실리콘 보수공사 등 임시조치를 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폴리우레아 방수공사(약 1억7천만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붕 전체를 방수재질로 도포하는 방식으로 완전 방수가 가능하며 미관 저해가 우려되는 장단점이 있으나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직원 응대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관내 농가에서 무화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모습과 수확된 무화과.

〈영암군 제공〉

“영암 무화과, 쿠팡 로켓배송으로 받으세요”

오후 1시까지 주문 시 다음날 도착

제철을 맞은 영암 무화과를 쿠팡 로켓 배송으로 새벽에 만나볼 수 있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 무화과 생산자단체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로코노미(Local Economy) 협업사업’으로 이달부터 무화과를 전국에 배송하고 있다.

온라인 ‘쿠팡 로켓프레시’에서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영암 농가에서 수확된 무화과가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 소비자의 문 앞에 배송된다.

영암군과 공동사업법인은 산지 직송 새벽 배송 유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쿠팡 측과 만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인간이 재배한 가장 오래된 과일로 알려진 무

화과는 8-11월 재배되고 8월 말인 요즘이 과실의 외형도 좋고 당도도 높아지는 제철이다.

특히 전국 생산량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암 무화과는 빼어난 당도와 독특한 터지는 식감으로 여름 대표 과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돼 염증 억제와 장 건강 개선 효과가 높고 피부미용에도 좋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여름의 특별한 맛 영암 무화과를 새벽에 산지 직송으로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8일부터...전남 22개 시·군 합동

진도군은 24일 “오는 28일부터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다음 달 4·11일에는 읍·면의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군청 징수팀, 세외수

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해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하는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안내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남도 22개 시·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단속 강도가 높을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